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 축일 전 주일

아담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의로운 선조들과 예언자들

성 아나스타시아 대순교자

제2조, 조과복음 5(조과에서 성탄 까따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탄 대림절 찬양송 / 208. B 245

· 성당 찬양송

· 성탄 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 사도경: 히브리 11,9-10. 32-40 /

208. 봉독서 640

· 복음경: 마태오 1,1-25 / 209. B 24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2019년 성탄절 메시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속(救贖)! 영원의 무게를 가진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성탄 축일의 위대하고 감동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 희망적인 단어는 항상 우리의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구속을 갈망하고 간청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첫 선조들은 타락하여 낙원에서 추방된 후, 줄곧 구속을 갈망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낙원에서 누

☞ 2면으로 계속

☞ 1번에서 계속

렸던 처음의 행복으로 다시 돌아가길 갈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전까지, 인류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적인 가르침에서 구속을 찾으려고 헛되이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은 술, 마약, 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같은 헛된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속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의 탄생을 통해 이 선물을 인류에게 보내셨습니다. 성탄절 영성체송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속전을 내어 당신 백성을 구해 내셨다.”(시편 111:9)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영혼아, 저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분을 선양할지어다.”라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구속자를 우리에게 낳아주신 성모님을 선양하는 것 또한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속은 이론이나 추상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진정한 기쁨과 내적 평화의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로는 모든 잘못의 근원인 죄로부터, 두 번째로는 사람을 해하는 악마로부터,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 절망과 자멸로부터 우리들을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개인의 구속은 사회적 구속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회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전쟁, 폭력, 테러,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범죄, 모든 종류의 비인간적 행동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인이 지상에서의 온 생애를 투쟁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에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되길 원하는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각자의 구속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면,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 년에 하루 경축되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축일로 머물지 않고, 개인과 사회의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협력자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항상 계시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길 기원합니다.

육신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영광 돌리며,
✠ 암브로시오스 한국대주교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반짝이는 빛이 그분의 현존을 말한다. 그분이 세상과 우리 안의 모든 어두운 그늘을 비추시듯이 그분의 탄생으로 인해 세상에 빛이 되 돌아온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좋아하는 음식과 음료가 있는 축일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가 없다면 그저 입 속의 먼지와 같다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멋지게 포장된 선물이 주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선물에 대해 귀를 기울이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찬양가로 기뻐하고, 하늘은 온 창조물이 구세주를 맞이하듯 천사들의 우레같은 승리의 함성으로 메아리를 울린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에덴은 회복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그분의 탄생을 보며 기뻐한다. 모든 창조물은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영원히 부른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버려진 종이 더미, 빈 상자, 깨진 약속, 더러운 접시 아래 온 창조물이 중심으로 삼아 회전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 중심이다. 그분이 전부이다. 그분은 헤롯을 피해 달아난 난민이시다. 그분은 이집트에서 피난처를 찾으신다. 그분은 머리 둘 곳 없는 노숙자이시다. 그분은 박해받고, 배고프고, 고문당하고, 투옥되신다. 우리가 가난한 이를 돕듯 그분도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우리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신자와 비신자들 안에 똑같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하자. 그분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시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자! 아멘!

▶ 아타나시아

스테파노스 황경수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12월 27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스테파노스 황경수 신부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양떼를 오래도록 영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성탄절과 신년, 신현 축일 예배 일정
- 2019년 12월 24일(화)
오전 : 성탄절 대시과
오후 : 성탄 대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 오스 성찬예배
- 2019년 12월 25일(수)
오전 : 성탄 대축일 조과, 성 요한 크리스 스토모스 성찬예배
성탄 대축일 행사 및 사랑의 오찬
- 2019년 12월 31일(화)
오후 : 축일 대만과
- 2020년 1월 1일(수)
오전 : 축일 조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 예배
바실로삐따 축성 기도식, 다과
- 2020년 1월 3일(금)
오전 : 신현축일 대시과
- 2020년 1월 5일(일)
오전 : 주일 조과, 성 요한 크리스스토모 스 성찬예배
- 2020년 1월 6일(월)
오전 : 신현축일 조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신현축일 대성수식
- ☞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 신자총회 공고 ▷ 2020년 1월 12일 주일

서울, 부산, 전주, 춘천, 울산 성당에서는 성찬예배 후 신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2019년도 결산과 영적 사업의 결과와 2020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신자총회 공고 ▷ 오늘 12월 22일(주일) 정오에 제35회 신자총회가 개최됩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신자 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2019년 사업 보고 및 2020년 사업 계획
 2. 2019년 회계 결산 및 2020년 회계 예산
 3. 운영위원, 단체장 선임 및 연임
- 신자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신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년도 회비 5,000원 납부자에 한합니다. 모든 신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 지난 12월7일(토)에 그리스사람인 디미트리오스 파블리디스 유아가 크리스토퍼 사제 집전의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주간예식

· 12월 27일(목) 성 스테파노스 대보제 첫 순교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